

자유를 공포하는 날 (레위기 25:8-28)

자유를 공포하는 날이다. 그리스도의 날이라 생각하면 될 것이다. 오늘 본문 전에는 안식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레위기 25장 1-7절이 안식년에 대한 이야기이다.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하나님 앞에서 안식하게 하라고 했다. 광야에서는 못한다.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땅에 안식년을 주라는 말이다. 4절에는 6년동안에는 포도원의 소출을 거두지만 7년째에는 그 땅을 쉬어 안식하게 하라는 것이다. 여호와께 대한 안식인데,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라고 하셨다. 포도나무를 잘 가꿔야 열매를 잘 열리는데 그거 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냥 놔두라는 것이다. 6절에는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니 남종과 여종과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라고 하셨다. 밭에다가 너희가 아무것도 안해도 열매가 열릴 것이라는 것이다. 전에는 6년간에는 니가 주인이 되어 니가 하지만 이제는 안식년의 소출은 다른 사람들이 먹게 하라는 것이다. 그리고 심지어는 7절에 보면 니가 축과 들짐승들이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는다고 하였다. 그러니까 사람 뿐 아니라 집에서 기르는 가축이나 들짐승도 그것을 먹도록, 그것을 내것으로 거두지 말고 놔두라는 것이다. 니가 7년째에는 농사 안짓고 그냥 두면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이 관리해주셔서 여전히 열매 맺고 결실하게 할 것이라는 것이다. 그 때 나오는 소출은 너의 것이 아니라 너의 남종이나 여종 또는 거류민들에게 줘야 하는 것이다. 가축은 당연히 줘야 할 것이다. 그러나 온데 들판의 짐승들도 먹어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안식년이다.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이 이 하나님의 안식년을 누리게 하라는 그 말이다. 이 안식년을 통해서 하나님, 창조주가 누구인지를 보여주겠다는 말이다. 제일 먼저는 그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니가 노력으로 이것을 얻는게 아니라 가만히 있어도 괜찮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은 우주적이다. 우주의 모든 피조물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말이다.

로마서 8장 19절에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게 무슨 말이나면 하나님의 아들들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 날, 모든 피조물도 회복된다는 것이다. 그 때를 고대하고 있다,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 기준이다. 그리고 이 안식년에는 밭의 농사도 하지 않고 가만히 놔둬도 문제 없다는 것이 또 하나의 메시지이다. 하나님의 안식은 전 우주적이라서 사람만 아니라 짐승까지 포함한 우주적인 것인데, 또 하나의 메시지는 너일 안해도 괜찮다는 것이다. 이미 너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신 하나님이 니가 놀아도 하나님이 니 농사를 짓는 것을 니가 칠년에 한번씩 봐야돼. 그래야 너의 신앙이 유지가 되지..이런 말이다. 그 해에는 너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안식하고 내가 주는 열매를 먹으라는 것이다. 그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라 너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잖아 라는 것이다. 강력한 메시지이다. 이 안식년을 지키라는 것이다. 이것이 안식년의 메시지이다.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와 똑같다. 니가 죽을 이유는 없다. 왜 자꾸 니가 죽으려고 하나, 니가 왜 노력으로 뭘 하려고 하나, 그리스도를 두려워하지. 니가 죽는다고 해서 무슨 효과가 있냐? 십자가에 죽는다고 해도 쓸데 없이 죽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이미 완성한 모든 응답을 누리고 너는 100% 영광을 돌려라. 너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놀라운 그리스도의 비밀이 안식년 안에 들어있고 안식일 안에 들어있다. 다시 한번 가슴에 언약이 되기 바란다.

우리는 염려가 많다. 그리스도를 언약 잡고 안해봐라 죽는가. 우리는 뭘을 이뤄야 하겠다는 생각이 많아서 자기 동기가 들어가고 노력이 들어가고 그리스도가 내려가는 것이다. 그러하지 말라는 것이다. 답 나면 사단 끝날줄 믿는다. 인생의 문이 열리고 인생의 전도의 선교의 문이 열릴줄 믿는다. 렘

넌트들이 이 답이 나기를 바란다. 그래서 진짜 누리는 자가 되고 그것 때문에 영권이 살아나서 방해하는 흑암이 무너져야 한다. 인류가 살아온 역사가 굉장히 긴데, 그 중에서 가장 큰 문제는 그것이 바로 원죄 사건이다.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망했다. 한 개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이 회복이 안된다. 불가능하다. 어떤 일을 해도. 거기에 대한 답이 그리스도이다. 근본을 언약으로 잡아야 한다.

1. 자유를 공포하는 날

희년이다. 50년째 되는 해의 7월 10일 대 속죄일이 이 날이다. 이 날은 전국적으로 나팔을 분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매여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를 얻는 날이다. 10절에 이렇게 말씀한다. 너희는 50년째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고 하셨다.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기쁜 해라는 뜻이다. 각각 소유지로 돌아가고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가라고 했다. 사람이 살다 보면 경제적 문제가 있어서 팔려서 종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경제가 너무 힘들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을 다른 사람에게 팔 때도 있을 것이다. 당장 팔면 곡식이 없어서 힘들줄 알면서도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무슨 이유로 팔았든지간에, 팔았으면 그 사람에게 이 땅이 넘어가도 희년이 되면 공짜로 그 땅을 돌려 받는 것이다. 그리고 돈 때문에 남의 집에서 몸으로 때워야 하는 것도 희년이 되면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것이 희년이다. 그래서 이제 땅을 누구에게서 샀다고 해서 자기것이 영원히 된 것이 아니라서, 그것을 살때에는 희년까지 계산해서 그 땅의 이용권을 사는 것이다. 땅 자체를 산다는 것은 이스라엘에는 없다. 땅을 사용해서 거기서 나오는 소출을 계산해서 그 값을 주는 것이다. 23절에 보면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내것이라고 하였다. 너희는 거류민이고 동거하는 자로 나와 함께 있는 자라고 하였다. 땅은 너의 것이 아니라 내것이라고 했고, 너는 거기 사는 사람이고 동거인지 너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것이 땅에 대한 하나님의 개념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에 맞춰서 산다. 율법이 그들의 법이니깐.

그리고 희년이 오기 전에도 그 땅을 돌려받는 방법도 써냈다. 24절에 보면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토지 무르기를 허락하라고 하였다. 희년이 오기 전에도 그 땅값을 물어줄만한 재력이 있으면 물어주고 가져오는 것이다. 그 때 만일, 그 땅을 되 산자가 내 땅이라고 무르지 않을수가 없다. 미국은 땅을 사고 나서 전 주인이 와서 돈줄테니 내놓으라고 하면 말이 안된다. 그 전에 판 값의 100배를 준다 해도 내가 팔기 싫으면 안 파는 것이다. 이스라엘은 그것이 안된다. 내 땅이니깐 안 돌려준다는 것은 없는 일이다.

성경의 예에 보면 룿기에 보면 보아스가 이렇게 했다. 엘리멜렉 가정이 모압으로 갔다가 완전히 망하고 남자들이 다 죽었다. 그래서 그 부인 나오미가 며느리 하나 데리고 이스라엘로 데리고 왔다. 그러면 땅이 있어야 되는데, 그때 이삭이라도 주을 땅이라도 값을 누가 주고 엘리멜렉 가문에 돌려줄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물어주는 것이다. 보아스가 룿을 좋아해서 그랬겠지만 돈을 주고 땅을 물려줬다. 그리고 룿과 결혼해 아이를 낳았는데 그 이름이 오벳이다. 오벳은 보아스의 자손이 아니라 법적으로 엘리멜렉의 자손이다. 보아스는 돈이 있어서 그 땅을 무르고 그 땅을 오벳에게 주는 것이다. 그래서 그 땅이 엘리멜렉 가문으로 다시 돌아가게 된 것이다. 보아스는 그럼 뭐냐면 자기에게는 아무것도 없고 그냥 하고 싶어서 한 것이다. 이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우리에게 대한 구속을 설명하는 또 하나의 이야기이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땅을 기업으로 받은 자는 언제든지 그 땅으로 돌아갈수 있다는 기본 원칙을 깔아 놓은 것이다. 그 땅을 처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 외에는 그 땅을 절대 소유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항상 자유를 선포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럼 처음 받았던 그 소유자로 그 땅이 돌아가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이 왜 이런 제도를 만드셨을까? 첫째는 전부다 내 것이라는 것이다. 두 번째는 이 땅이 생명이라는 것이다. 땅이 없어서 농사 못져서 먹을게 없으면 죽는다. 그래서 그 약속의 땅에 내가 밭붙일 곳이 없으면 구원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아무도 이 땅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원칙적으로 막아둔 것이다. 우리 구원이 본래 그렇다는 것이다. 아무도 우리 구원을 손대지 못한다.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의 구원을 자기 소유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너는 하나님이 정한 날에 자유를 선포하라는 것이다. 그리하여 내 백성이 네게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되게 하라는 것이다. 이것이 나의 회년이라는 것이다. 7년씩의 안식년의 7번 후의 다음해를 말하는 것이다. 대 속죄일에, 이게 내 그리스도 언약이라는 것이다. 안식후 첫날, 7년 안식년 이후 그해 부활의 날이다. 이런 이야기를 담고 그날 너는 자유를 공포하라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2. 그리스도

자유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다. 안식도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다. 마태복음 12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1절에서 8절을 읽어보면 제자들과 예수님이 걸아가다가 안식일에 배가고파서 밀밭에서 밀을 손으로 비벼서 먹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걸었다. 안식일날 타작을 하다니 말이 되냐는 것이다. 그때 예수님이 두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했다. 안식일을 범했다는 것인데, 안식일을 범한 정도가 아닌 두 가지를 들어 설명했다. 그 첫째는 다윗이 쫓겨다닐 때 성전안에 있는 진설명 12개가 있는데, 제사장 외에는 손 못대는 것을 다윗이 먹었다. 배고파서. 다윗이 누구인가? 이스라엘에서. 바리새인들은 다윗하면 무릎 꿇는다. 다윗은 안식일 정도가 아니라 그 떡은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데 그것을 먹었다. 또 하나는 제사장들은 안식일이 되면 성전 안에서 일을 죽으라고 한다. 소 한 열 마리하고 양 한 백마리를 하루에 잡으면 얼마나 힘이 들겠는가? 그런데 아무도 안식일 어겼다고 말하지 않는다. 안식일을 어기면 안된다고 한 적 있냐는 것이다. 그러면서 거기에 그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고 하셨다. 그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셨다. 안식일은 내 것이라는 말이다. 상상도 못할 소리이다. 안식일은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는 것이다. 그 주님은 성전보다도 더 크신 이다. 그러면 모든 율법 위에 계신 분이요. 성전도 안식일도 전부 율법 아래 있다. 주님은 율법 위에 있는데, 그러니까 주님은 성전 지킬 필요 없고 안식일 지킬 필요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무슨 말이라면 내가 안식일을 지키는게 아니라 안식일이 나를 지켜야 돼, 내가 그 위에 있는데. 안식일의 내용이 나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니 바리새인들이 머리통이 깨졌을 것이다.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이 안식년, 회년인데, 당연히 안식년도 내 것이라는 말이다. 그리스도는 안식년의 주인이고 회년의 주인이다. 안식년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도, 회년 제도를 만드신 이유도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설명하기 위해서이다. 그 자유가 무엇인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를 설명하기 위하여 회년을 만드신 것이다. 회년 안에 그리스도가 없는데 어떻게 자유가 선포되는가? 그리스도 없이 어떻게 우리가 매여 있는 곳에서 자유를 선포하는가? 안식년의 안식은 그리스도이다. 회년의 자유도 그리스도에 의해서이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인생 잘 안 풀리는 분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디에 매여 있다는 말이다. 그리스도 선포해야 한다. 그래서 그 결박을 끊어야 한다. 영적 문제이다. 원죄가 모든 문제의 원인이다. 영적

문제이다. 더 확실한 것은 원죄 뒤에 사단이 있다. 진짜 본질 뒤에는 사단이라는 것이 성경이 하는 말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제일 먼저 보내겠다는 이유가 뱀의 머리를 깬다는 것이다. 어디에 매여서 내가 맥을 못추고 있다면 그리스도 선포해야 한다. 나는 왜 그리스도가 안돼? 그리스도 선포해야 한다. 그러면 인생 풀린다. 많은 증거가 성경에 있고 우리 주위에도 많이 있다. 그 때 인생이 풀린다. 신자는 전부 이렇게 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내 인생에 그때 자유가 선포되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를 선포할 때 내 인생이 풀린다. 내 인생을 묶고 있는 것들에 대한 원리는 똑같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방법 쓰며 안된다. 안식년의 메시지가 뭐냐? 놀아보라는 것이다. 물론 조건은 그리스도 언약 안에 있어야 한다. 근본이고 기본이다. 예를 들어서 7년째 쉬었고, 그 다음 8년째 파종을 하면 그 다음해에 먹는데 그러면 9년째에 8년째 파종한 것을 먹는다. 21절에 보면 내가 명령하여 6년째에 명령해서 그 소출이 3년동안 먹기에 부족함 없도록 해주신다는 것이다. 6째해에 주신 소출이 6,7,8 삼년 먹을 것을 6년째에 주시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그렇게 써 놔다. 3년동안 너희가 여덟째해에는 파종하고 7년째에는 아무것도 파종하지 말고 가만히 두라는 것이다. 그러면 묵은 소출을 먹을 거라는 것은 6년째것을 먹으라는 것이다. 아홉째해에 그 땅에서 새 소출이 들어오는 것이다. 그 때까지는 니가 묵은 것, 즉 6년째 곡식을 7,8년째에 먹으라는 것이다. 다른 방법 쓰지 말아야 한다. 그리스도 진짜 해야 한다. 그러면 깊은 기도도 할 수 있고 3초월도 할 수 있다. 지금 안되어도 오직 그리스도 해야 한다. 안된다고 해서 다른데로 가면 안된다. 다른데 가면 그건 답 아닌 것이다. 무조건. 답은 하나 뿐이다. 거기 아니면 어디에 있던지 관계 없이 답이 아닌곳에 있는 것이다. 그래야 참된 답이 오는 것이다. 안되도 여기 있어야 내 남은 인생 전체를 쓸 수 있는 진짜 답이 온다.

그리스도는 인간이 사단의 울무에서 해방되는 유일한 길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길이라고 했다. 베드로가 주님께 대답했다. 다른게 한게 아니다. 고백 바로 했다. 그런데 엄청난 약속 세가지를 받았다. 이 세 개만 있으면 우리의 모든 문제 영원히 해결하는 것이다. 너는 반석위에 세워진 교회야. 왜냐면 니가 고백을 바로 했어. 음부의 권세는 니 평생 절대 너를 이기지 못한다. 이유는 니가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았기 때문에.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었으니 니가 보좌의 축복을 지금도 누릴 수 있어. 이유는 한 개야. 니가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았기 때문에. 베드로는 다른거 한거 아니다. 주님은 그리스도라고 바로 고백을 했다. 우리도 이거 하면 된다. 수시로 하고 매일 하고 딱 시간 정해놓고 정말로 한번 하루에 한번 하는 것이다.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시오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다. 그러면 자꾸 더 깊어진다. 복음이 바른 자의 기도는 그냥 그 자리에 있지 않는다. 전에는 했던 이야기를 계속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발전한다. 자꾸만 깊어지고 더 큰 영권을 누리게 된다. 더 깊은 기도의 비밀 누리게 될 것이고 24시 누리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이다. 24시. 그리스도도도 없는데 왜 24시를 주시겠는가? 그리스도 없이 24시를 받아본 들 뭘 어떻게 하겠는가? 그리스도 없는 기도를 24시 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반드시 귀신 돌아온다. 틀림없다. 그리스도 없는 기도 24시 계속하면 반드시 귀신 들어온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가장 근본이면서 최종, 끝인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언약으로 잡아야 한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의 출발이지만 출발로 끝나지 않고 결론이다. 그것은 단순한 출발이 아니다. 하나님이시기에. 다시 한번 언약되기 바란다. 그리고 개인과 자신과 인생에 대하여 이 그리스도의 자유를 선포하는 주간이 되기 바란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모든 문제에서 해방되고 증인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란다.